

# 韓國儒敎史 研究의 現況과 方向

琴 章 泰\*

> 차 례 <	
I. 문제의식과 과제	III. 유교사연구의 현재
II. 유교사 연구의 전통	IV. 연구현황의 성찰과 새로운 방향의 모색

## I. 문제의식과 과제

### 1. 유교사 연구의 의미

한국유교사연구의 문제는 '전 시대의 유산'과 '우리시대의 탐색', 그리고 '앞으로 지향해가야 할 새로운 방향'이라는 시대적 성격을 대비하면서, 사실상 오늘에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를 더욱 명확히 인식하고자 하는데 의도가 있다. 과거로서 '조선시대'는 유교이념이 제도와 정신을 획일적으로 지배해왔었다면, 현재로서 '우리시대'는 유교적 질서의 급격한 붕괴와 유교에 대한 학문적 연구의 소생이 교착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있으며, 미래로서 '21세기'는 유교의 의미가 어떻게 인식되는가 또 어떻게 기능할 수 있는가에 따라 유교연구의 새로운 차원이 열릴 것이요, 사상·문화·종교 속에서 유교가 차지할 자리의 성격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 서울대 교수, 종교학.

1909년 유교사회가 견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白巖朴殷植은 『儒敎求新論』에서, “대저 과거의 19세기와 오늘의 20세기는 서양문명이 크게 발달한 시기요, 장래의 21·22세기는 동양문명이 크게 발달할 시기이니, 우리 孔子의 道가 어찌 끝내 땅에 떨어 지리오. 장차 전세계에 그 光輝를 크게 드러낼 시기가 있을 것이다”라 선언하였던 일이 있다. 20세기가 저물고 21세기가 눈앞에 다가온 오늘에서 박은식의 말을 되새겨보면, 아마 그렇게 쉽게 낙관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전면적으로 무너진 뒤에 미약하나마 새로 일어나려는 기운이 있는 것은 사실이요, 유교사연구의 관심도 단지 과거의 문헌 속에 빠져있을 것이 아니라 항상 현실의 유교적 실상과 연결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유교사연구의 새로운 가능성도 내다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유교사’는 유학사보다 좀더 넓은 의미로 쓰고자 한다. ‘유교’와 ‘유학’은 전통사회에서 같은 의미를 갖는데 비하여, 오늘날은 학문적 지식체계로서 ‘유학’을 쓰고, 敎化的 종교적 체계로서 ‘유교’를 쓰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그러나 ‘유교’는 학문체계와 의례·신념·관습·생활양식 등 다양한 유교적 문화와 가치관을 포함하는 뜻으로 쓸 수 있을 것으로 본다.<sup>1)</sup>

## 2. 연구의 범위

한국유교사의 연구는 조선시대에서부터 다양한 형식으로 시도되어 왔으며, 이 때에 이루어진 저술들의 성격은 (1) 학문영역에 따라 정리된 分野別 연구와, (2) 시대적 변천과정을 정리한 通史的 문헌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또한 ① 인물의 사상을 분류·정리한 淵源·學派別 연구와, ② 학문영역에 따른 問題別 연구를 구분할 수도 있다.<sup>2)</sup>

### 1) 유교사의 분야별 업적

- (1) 道統論 - 栗谷; 『聖學輯要』, 『聖賢道統』篇

1) 금장태, 「한국유학사 연구자료의 분석」, 『한국유교의 이해』, 민족문화사, 1989, 233-251쪽 참조.  
2) 아래에 ‘유교사의 通史的 연구’ 저술로 들고 있는 10종의 書名에서 ‘유교’로 밝히고 있는 것이 3종, ‘유학’으로 밝히고 있는 것이 6종, 어느 쪽도 밝히지 않은 것이 1종이 있다.

1) 유교사의 분야별 업적

- (1) 道統論 - 栗谷; 『聖學輯要』 ‘聖賢道統’ 篇
- (2) 經學史 - \*梁大淵; 「大學體系の 研究」
- (3) 性理學史 - 李瀾; 『四七新編』/蔡元洪; 『性理管窺』/\*劉明鍾; 『조선후기의 성리학』
- (4) 禮學史 - 『文獻備考』 禮考
- (5) 義理論史 - 正祖; 『尊周彙編』/宋秉稷; 『尊華錄』/『昭義新編』
- (6) 陽明學史 - \*李能和; 「朝鮮儒界之陽明學派」/\*鄭寅普; 『陽明學演論』
- (7) 實學史 - 宋秉璋; 『武溪叢輯』/\*千寬宇; 『韓國實學思想研究』
- (8) 學校史 - 『太學志』/校志(鄉校)/院志(書院) (\*표는 근대이후의 연구)

한국유교사의 전체적 이해를 위해서는 개인 유학자의 연구와 병행하여, 각 특수분야의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 전통사회에서 유교사의 분야별 연구의 축적은 부분에 따라 업적의 축적정도에 심한 차이를 드러내는 것은 그 시대의 관심과 연구자세를 보여준다.

2) 유교사의 通史的 研究

- 제1기 ① 宋秉璋, 『溟東淵源錄』(1882) 漢文本
- ② 河謙鎮, 『東儒學案』(1943成, 1970刊) 漢文本
- ③ 張志淵, 『朝鮮儒敎淵源』(1922) 漢文本(국역)
- 제2기 ④ 李丙燾, 『資料韓國儒學史草稿』(1959刊) } 漢文本
- 『韓國儒學史略』(1986) } 漢文本
- 『韓國儒學史』(1987) } 국문본
- ⑤ 玄相允, 『朝鮮儒學史』(1949) 국문본
- 제3기 ⑥ 襄宗鎬, 『韓國儒學史』(1974) } 한국성리학사
- 『韓國儒學資料集成』(1980) } 를 다루고 있음
- ⑦ 柳承國, 『韓國의 儒敎』(1976)
- ⑧ 尹絲淳, 『韓國儒學論究』(1980)
- ⑨ 金忠烈, 『高麗儒學史』(1984)
- ⑩ 琴章泰, 『韓國儒敎思想史』(1986)

2) 아래에 ‘유교사의 通史的 研究’ 저술로 들고 있는 10종의 書名에서 ‘유교’로 밝히고 있는 것이 3종, ‘유학’으로 밝히고 있는 것이 6종, 어느 쪽도 밝히지 않은 것이 1종이 있다.

한국유교사(유학사)의 통사적 연구는 (1) 1945년 이전에 간행된 한문본 저술의 제1기, (2) 1945-59년 사이에 간행된 한문본에서 국문본으로 이행되는 제2기, (3) 1960년대 이후 현재까지 간행된 제3기로 구분해볼 수 있다. 여기서 제1기는 지난시대의 유교사 연구이고, 제2기는 오늘날 통용되는 유교사연구의 기초를 마련한 定礎단계요, 제3기는 최근의 확대 심화한 연구의 築造단계라 할 수 있다.

## II. 유교사 연구의 전통

### 1. 유교사 연구의 발단

유교사의 통사적 연구로 제1기에 속하는 宋秉璿·河謙鎭·張志淵의 저술을 통하여, 지난시대의 유교사 연구 유산의 성격을 음미해볼 수 있다. 먼저 宋秉璿의 『溟東淵源錄』(1882)과 河謙鎭의 『東儒學案』(1943)은 저술의 구성체계가 전통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張志淵의 『朝鮮儒教淵源』(1922)는 저술의 시기로 보면 『동유학안』에 앞서지만 저술의 방법에서는 근대적 학문방법을 수용하여, 현대적 연구의 先河를 열어 주었다.

(1) 먼저 『패동연원록』과 『동유학안』의 체제를 비교해보면, 『패동연원록』(10권)은 朱子의 『伊洛淵源錄』을 모방하고 朴世采의 『東儒師友錄』을 참고하여 조선시대 도학자 중심으로 그 淵源과 師承관계를 기준으로 정몽주 등 69명의 인물들을 27연원에 따라 열거하고 있다. 이에 비해 『동유학안』(23편, 3책)은 黃宗羲의 『明儒學案』에 상응하는 우리나라 유학사의 학파적 제보에 따른 17學案에 설총 이하 151명의 인물과 학설을 정리한 것이다.

이 두 저술에 수록된 인물은 33명만 공통되고 나머지는 서로 다른 심한 편차를 보여준다.

懷德의 宋秉璿은 송시열의 후손으로 노론에 속한 인물로서, 영남도 학자를 退溪門人, 退溪私淑, 退溪淵源, 寒岡門人의 '4'淵源으로 몰아 넣고, 南冥 연원은 전부 누락시켰으며, 畿湖학통은 栗谷從遊 이하 '24'

淵源으로 세분하고 있다.<sup>3)</sup> 이에 비해 晉州의 河謙鎭은 면宇 郭鍾錫의 문인으로서, 영남학파에는 陶山·陶山門下·陶山私淑·德山·德山門下·德山私淑·寒旅·坪浦의 '8'學案으로 자세히 나누어 퇴계연원 뿐만 아니라 자신과 지역적으로 가까운 南冥연원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으며,畿湖학파에 대해서는 潭坡(울곡, 우계)·潭坡門人私淑·湖洛學派의 '3'學案으로 간략하게 다루고 있다.

이처럼 제1기 한국유교사 연구에서는 분류체제에서도 당파적, 학파적, 지역적 편향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객관적 공정성을 잃은 문제점으로 비판되어야 할 것이지만, 동시에 어떤 지역·학맥·당파 등에서는 어떤 인물과 학맥이 유교사의 중요한 비중으로 떠오르는가를 엿볼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 이러한 편파적 인물선정의 편견은 객관적 유교사 연구의 유산으로서 한계가 있으므로, 가능한대로 여러 당색·학파의 문헌을 비교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한 당파 인물의 저술에 의존하는 위험성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여러 분파의 문헌을 균형 있게 이용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오류는 우리시대의 유교사연구에도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2) 다음으로 구성내용을 보면, 『패동연원록』은 行狀, 碑碣類, 請從祀疏, 文集序, 言行錄, 遺事, 祭文 등 뒷사람들의 傳記類 자료이고, 『동유학안』은 그 인물의 사상내용을 보여주는 저술에서 採錄한 것으로서 그 특징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같은 인물의 저술에서 선발된 자료가 유교사의 저술마다 다르다는 사실은 편찬자의 개인적 우연성에 기인된 경우도 있고, 충분한 연구기반이 없어서 한 인물의 방대한 저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를 적절히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지만, 수록자료의 차이에서 각각이 지닌 유교사의 입장이 드러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체계의 구성에서도 『패동연원록』은 학통의 淵源을 중심으로 분류한 것

3) 宋秉培는 畿湖학통에서도 主氣論者인 徐敬德를 누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宋時烈과 갈등을 일으킨 尹宣舉·尹拯을 제거하였으며, 그 대신에 畿湖학통을 栗谷從遊/ 栗谷門人/ 牛溪門人/ 沙溪門人/ 尤菴從遊/ 愼獨齋門人/ 尤菴門人/ 玄石門人, 出入尤菴門/ 打愚(李瑋)淵源/ 寒水齋門人/ 陶菴(李維)從遊/ 農巖門人/ 農巖淵源/ 同春淵源/ 陶菴門人/ 南塘門人/ 貞菴(閔澗洙)門人/ 震坪(宋能相)門人/ 丈巖(鄭濬)私淑/ 遊溪淵(金元行)門人/ 止菴(金亮行)門人/ 松巖(李載亨)私淑/ 過齋(金正默)門人/ 遊近齋(朴胤源), 中洲(李直輔)門人으로 세분하고 있다.

이지만, 『동유학안』은 연원을 줄기로 하면서도, ‘湖洛學派學案’처럼 학설의 쟁점이나, ‘經世諸儒學案’·‘守道諸儒學案’·‘清隱諸儒學案’처럼 사상사의 시대적 조류를 혼합하여 분류하고 있다. 道學 내부에서 단순학 淵源-學脈을 분류하는 데서 유교사의 이론적 쟁점과 중요한 시대조류를 도입한 것은 유교사의 다양성과 시대성을 드러내는 매우 중대한 進展이라 할 수 있다.

## 2. 유교사연구의 근대적 전환

유교사연구에서 근대적 연구방법의 선구적 저술인 張志淵의 『조선 유교연원』(3권)은 처음으로 양명학자와 실학자(經濟를 겸한 유학자)들을 다루었고, 아직까지 유학사연구에서 거의 死角지대에 속하는 關西·關北지방의 유학자들까지 소개하는 포용성과 균형성을 보여주며, 성리학·양명학 등 학문적 쟁점이 되었던 문제에는 관련문헌의 내용을 소개하는 등, 이 시대 한국유교사를 가장 풍부하고 다양하게 전개하였다. 또한 권말에 붙인 ‘儒敎者辨’項에서는 ‘儒’의 근본적 의미를 재음미하여 역사적 침체현상을 성찰하고, ‘儒敎祖孔子’項에서는 중국유교사에서 孔子를 尊崇해왔던 전통을 밝힘으로써, 그의 시대에서 유교의 종교적 신념을 재확인하고 있다.

## Ⅲ. 유교사연구의 현재

### 1. 유교사연구의 정초

유교사연구 제2기(1945-59)는 해방후에서 동란기에 이르는 혼란 속에 학문의 새로운 체계를 수립하는 시기이다. 이 때의 대표적 연구서로서, 최후의 한문본 유교사인 李丙巖선생의 『자료한국유학사초고』<sup>4)</sup>와 최초

4) 『자료한국유학사초고』는 1937년 더 많은 분량의 자료로 정리된 원고를

의 국문본 유교사인 현상윤선생의 『조선유학사』는 반세기 전의 저술로서, 아직도 이 두 책의 시대구분과 학파의 분류는 통용되고, 그 유교사에 대한 통찰력이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이병도의 『자료한국유학사초고』는 시대사의 변천 및 시대사회의 문제와 연관 속에 유교사를 서술하고 있다. 삼국에서 한말까지 걸치고 있으며, 고대와 고려시대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두어 종전의 심한 불균형을 어느 정도 시정하고 있다. 그는 조선시대를 過渡期/士禍期/學派·黨派分裂時代/湖洛論爭·考證學勃興時代의 4시기로 시대성격을 규정하였다. 현상윤의 『조선유학사』는 삼국시대는 빈약하고 조선시대에 치중하고 있지만, 성리학파 더불어 예학파를 설정하고 ‘양명학’·‘경제학파’·‘한말척사위정운동’까지 다양한 분야로 관심의 폭을 넓혔다.

『자료한국유학사초고』에서는 ‘서경덕’과 ‘이언적’이 하나의 節로 독립되고, 『조선유학사』에서도 ‘서경덕’·‘李恒’이 각각 한 節을 이루므로써, 퇴계·율곡 중심의 道學的 正統의식에서 소홀히 다루어진 ‘서경덕’ 등의 비중이 뚜렷하게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자료한국유학사초고』에서는 ‘湖洛論爭之發展’, ‘畿下南人學派與新學風’, ‘陽明學問題’, ‘歐洲文化之侵入與儒者之態度’ 등이나 『조선유학사』의 ‘禮學中心의 儒學’, ‘黨爭時代의 儒學’, ‘西學感染의 騷動’, ‘斥邪衛正의 운동’ 등은 제1기의 유교사연구에서 거의 고려되지 않았던 분야를 유교사의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게 되고 ‘歐洲文化之侵入與儒者之態度’나 ‘西學感染의 騷動’·‘斥邪衛正의 운동’은 서양문물과 종교의 침투에 대한 유교사회의 반응양상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유교의 종교적 역할도 엿볼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사실은 유교사연구의 제2기에 와서 당파적·지역적 관심에서 벗어나고 사상사의 쟁점과 역사적 영향을 객관적 시각으로 바라보았을 때 유교사의 구성체제가 변함에 따라 그 내용이 전혀 다른 비중으로 다루어질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현상윤은 『조선유학사』의 序論에서 유교전통에 대해 君子學·인륜도덕·청렴절도의 3가지 功과 慕華사상·黨爭·가족주의·계급사상·文弱·산업능력저하·尙名主義·復古사상의 8가지 罪를 열거하는 功罪論을 다루고 있다. 그것은 근대적 질서를 추구하는 1940년대 말의 입장에

1959년 간추려서 등사판의 책 형태로 간행되었다. 1986년 한문본 수정판으로 『한국유학사략』이 간행되고, 1987년 우리말 개정판이 『한국유학사』로 간행됨으로써, 우리시대에 지속적인 통용력을 확보하고 있다.

서 전근대적 유교전통의 功過를 성찰한 것이다. 그러나 20년이 지나 1966년 李相殷선생은 현상윤의 功罪論이 유교교리의 본질적 가치와 시대적 응용의 과오를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하여, 유교적 가치의 보편성을 재 각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sup>5)</sup> 그것은 제2기 유교사관과 제3기 유교사관의 전환계기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2. 유교사연구의 확산

1960년대 이후 제3기 유교사연구는 현재의 학문적 관심과 연구성과를 집약한 것으로서, 제2기연구의 전면적 개혁이 아니라 부분적 심화와 확장을 추구한 성과라 할 수 있다. 1970-80년대의 유교사 연구는 각각의 관심영역에 따른 초점을 뚜렷하게 부각시키고 있는 점에 특성이 드러난다.

1970년대의 대표적 두 저술은 裴宗鎬선생의 『한국유학사』와 柳承國선생의 『韓國의 儒敎』이다.

『한국유학사』(배종호)는 조선시대 性理學史의 본격적인 연구로서 매우 중요한 업적이지만, 유교사의 通史的 연구로서 전체성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다. 그러나 이 책이 실제로는 ‘한국성리학사’인 것을 ‘한국유학사’로 命名하고 있는 사실은 1970-80년대 한국의 유교학계에서 통용되던 현상으로서, 性理學이 현실적으로 유교사를 대표한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배종호의 『韓國儒學資料集成』(3권)은 그의 『한국유학사』저술에서 사용하였던 原典의 성리설들을 인물 별로 수집한 것이다. 이처럼 성리학과 유학을 동일시 하는 의식의 배경에는 전통사회의 유교적 신념이 붕괴되고 일제하에서 새로 학문적 관심에서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유학=철학의 등식관계를 확신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sup>6)</sup>

5) 금장태, 「사회발전과 유교의 역할」, 『유교사상과 한국사회』, 성대출판부, 1987, 266-9쪽 참조.

6) 해방후 성균관대학의 재건과정에서 유교-유학적 학풍을 계승한 분야는 처음에 ‘哲政科’로 시작하여 ‘東洋哲學科’로 변하면서 ‘철학’의 이름 속에 유교를 수용하였다. 유교에서 바로 이 철학의 집중적 관심이 되는 것은 성리학이었던 것이다.



『한국의 유교』(유승국)의 가장 큰 특징은 지금까지 모든 유교사의 연구가 조선시대에 집중되고 고대·삼국·고려시대가 매우 빈약하였던 사실에 비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심화시켜, 조선시대 이전과 조선시대 이후의 비중이 거의 같을 만큼 끌어올렸다. 題名에 '유교'라 한 것과 상응하여, 성리학에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니라, 유교적 신념의 실천 규범과 삶의 태도, 문화현상 까지 다양하게 다루고 있다.

1980년대 유교사의 통사적 연구성과로서 尹絲淳교수의 『韓國儒學論究』, 金忠烈교수의 『高麗儒學史』, 琴章泰의 『韓國儒敎思想史』를 들 수 있다.

윤사순교수의 『한국유학논구』는 조선시대를 前期의 '성리학'과 後期の '실학'으로 서술하여, 張志淵이 '經濟를 겸한 유학자'로 실학자를 소개한 이래 본격적으로 실학을 성리학으로부터 전환·발전과정임을 해명함으로써, 유교사의 시각을 크게 개선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시각은 역사분야에서 실학개념논쟁을 비롯한 실학의 업적의 진진을 유교사에서 수용하여 유교적 입장에서 재구성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책은 서론 '한국유학의 제문제'에서 한국유교의 정체성문제, 한국유교사의 발전사관론을 제기하여, 유교사관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김충렬교수의 『고려유학사』는 고려시대 유학을 중심으로 縱으로는 삼국시대와 조선초기까지 시대를 확장하고, 橫으로는 성리학의 전래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유교와 중국유교의 연관관계를 해명하는 연구로서, 한국유교사에 취약지대의 한 부분인 고려시대유교사를 집중적으로 미시적인데까지 조명함으로써 유교사의 시대사연구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또한 여기서 성리학의 전래시기를 安珣이전으로 소급하는 정밀한 고증작업은 귀중한 업적이다.

금장태의 『한국유교사상사』는 '한국종교사상사'(經典篇포함 전5권, 연세대출판부)의 한 부분으로 삼국시대에서 한말·日帝下까지 각 시대에서 유교사상사의 문제를 종교적 성격과 관련 속에 해명하고자 한데 특징이 있다. 곧 유교의 儀禮와 制度, 타종교와의 관계, 유교의 신념적 근거, 유교의 종교적 개혁운동의 문제들을 유교사의 중요한 성격이요 動力으로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 IV. 연구현황의 성찰과 새로운 방향의 모색

### 1. 연구현황의 성찰

1) 인물의 사상 연구: 우리시대에서 한국유교의 연구는 중심인물연구에서도 대체로 1970년대부터 활성화되고 있다.<sup>7)</sup> 따라서 1970년 이후 20여년 동안의 시기에 유학자 인물의 사상연구는 처음에 퇴계·율곡·다산 등 가장 비중이 큰 인물로부터 깊이 숨겨졌던 인물까지 발굴되어 연구되면서 저변으로 확산되었고, 비중이 큰 인물의 사상에 대해서도 개괄적 연구에서 미세한 문제들에도 심화되어 가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업적을 축적시켜 왔다. 이러한 인물연구의 축적은 유교사연구의 필수불가결한 기초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상당한 경우 인물연구에 연구자가 객관적 시각을 확고하게 확보하기 어려운 난관이 가로놓여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유학사의 인물연구는 사실상 처음부터 先賢을 尊慕하는 유교전통의 학풍이 상당한 압박요인으로 전제되어 있다. 더구나 유학자, 특히 도학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뿌리깊은 학파의 淵源과 門中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환경에 학맥과 문종의 先賢·先祖를 發揚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작용하면서 긍정적 의미를 발굴하는데는 적극적이지만 부정적 측면의 성찰을 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나 淵源과 門中에서 인물의 사상 연구를 후원하고 촉진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2) 분야와 쟁점연구: 유교사의 분야를 다양화시켜가고 문제의 쟁점을 깊이 다루어가고 있는 현상은 이 시대 유교사 연구가 기여하는 중요한 공헌이다. 經學의 연구가 새로운 활기를 띠고 확산되어 가고 있으며, 그 선구적이고 대표적인 업적으로 李乙浩교수의 『茶山經學研究』를 들 수 있다. 性理學史의 영역은 가장 깊이 천착하고 가장 많은 업적을 쌓은 곳이다. 退溪·高峰의 四端七情논쟁에서 李相殷선생의 仍說·對

7) 한국유교사에서 가장 활발한 연구대상이 되는 퇴계에 관한 연구도 1970년대에 본격화되기 시작한다. 금장태, 「퇴계학연구의 회고와 전망--철학적 영역」, 『한국의 철학』 18, 경북대 퇴계학연구소, 1990, 13-26쪽 참조.

說 논리와 劉明鍾교수의 橫說·豎說 논리의 논리구조 해명이나, 유명종교수의 『조선후기 성리학』에서 영남 人物性同異論爭 추적과 理氣說의 유형분석은 성리학사 연구에 중요한 성과를 이룬 것이다.

禮學의 쟁점문제는 禮訟의 쟁점에 관한 연구와 寒岡·沙溪 등 예학자의 禮說연구가 확대되면서 중요한 연구분야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유교의례 특히 祭儀는 유교의 종교성을 해명하는 문제와 깊이 연관되기도 한다. 최근에 禮學會가 조직되기도 하였다. 義理論의 문제로 선비의 의리정신문제와 尊卑排淸의리 및 한말 衛正斥邪論 등 역사적 위기 상황 속에서 유교적 저항정신과 수호의지의 원천적 신념이 되는 의리론의 문제가 활발한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 儒敎와 西學(천주교)과의 교리적·신념점 쟁점도 연구가 심화되어 왔다. 양명학의 분야는 金吉煥의 『한국양명학연구』(1981)과 劉明鍾의 『한국의 양명학』(1983)은 역사학에서 尹南漢의 『조선시대의 양명학연구』(1982)와 더불어 80년대 초거의 동시에 간행되어, 鄭寅普의 『陽明學演論』(1930)이후 양명학사연구에 중대한 진전을 이루었다. 實學史연구는 실학자의 개인별 연구에서 나아가 실학의 이론적 기반과 체계를 구명하는데 까지 다양한 문제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분야별 연구는 다양한 주제의 연구에서 상당히 많은 업적이 축적되었으며, 유교사의 통사적 연구는 이러한 구체적 주제별 연구를 통해서 풍성해질 수 있고, 그 위에 새로운 시각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교사연구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분야와 문제의 연구가 개발되고 있으나, 이미 제기된 것을 확대 심화시켜 새롭게 제기하는데 그치고, 전혀 새로운 방법과 가설을 통한 연구분야에 창설은 매우 드물다. 따라서 우리 시대의 연구분야 확대가 量的인 만큼 質의이라 하기는 어렵다. 이런 가운데 柳承國교수는 우리민족사상의 시원과 유교사상의 연원을 입증하는 가설을 위하여 甲骨學的 연구를 개척한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sup>8)</sup>

## 2. 새로운 방향의 모색

유교사 연구의 지나온 과정은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 발전해온 것이

8) 柳承國, 『동양철학연구』, 근역서재, 1983, 68쪽 참조.

라 할 수 있지만, 우리 시대 유교사 연구는 앞으로 새로운 차원의 성취를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과제와 변혁이 요구된다.

1) 한국유교사의 시대별 단층연구가 심화될 필요가 있다. 특정 시대의 역사적 사건이나 이론적 쟁점을 중심으로 유학자들의 문제의식이 지닌 다양한 반응과 상호관계가 아직도 충분히 연구되지 않고 있다. 삼국시대 유교사의 연구에서 근대의 유교개혁론에 관한 연구에 이르기까지 유교사의 횡적 연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확장될 필요가 있다.

2) 한국유교사 연구의 기초작업으로서 다양한 형태의 유교사자료집이 정리되고, 原典의 集成 및 국역화가 필요하다. 성리학분야에서 배종호의 『韓國儒學資料集成』(3권)은 그 좋은 성과의 하나이다. 방대한 자료를 특정한 문제·분야의 시각에서 정리한 자료집이 축적되어야 한국 유교사의 균형 있는 포괄이 가능할 수 있다. 더구나 전통시대 유학자의 저술 原典조차도 漢籍으로 온전하게 간행·배포되지 못하고 筆寫本으로 남아 있거나 제한된 配布로 구해보기 어려운 점이 유교사연구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그 동안 漢籍원전을 산반적인 影印으로 구하다가 淵源계열별의 영인으로 발전하고, 최근에 『韓國文集總刊』이 간행되고 있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는 일이지만, 그 완벽한 수집과 편찬작업은 국가적 사업이 아니면 어려울 것이다. 또한 유학자의 문집과 연구서 등 漢籍原典의 國譯사업이 더욱 촉진되어 학문인구의 저변확대를 이루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3) 유교사 연구의 學際間 연구성과의 교류가 필요하다. 철학·역사학·교육학·사회학·정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교사의 문제들이 연구되고 있지만, 그 연구성과의 공유가 원활하지 못한데 문제가 있다. 한국 유교사연구를 위한 學際間 공동작업도 시도될 필요가 있는 문제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기존의 유교사연구가 빠지기 쉬웠던 尊慕자세가 지닌 객관성의 부족도 극복 할 수 있을 것이다.

4) 유교사연구의 집대성화 작업이 요구된다. 한국유교사의 지금까지 연구성과는 대체로 충분한 기초연구가 없는 상태에서 개괄적 연구를 하거나, 혹은 부분적인 기초연구의 결핍으로 전체적인 균형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동안 유교사연구의 기초작업으로서 시대별·학파별·인물별·문제별의 다양한 연구가 축적되어 왔으므로, 앞으로는 巨細혈관까지 통하는 더욱 치밀한 유교사연구가 요구되고, 동시에 유교사의 전체를 바라보는 밝고 큰

안목이 요청된다. 우리 시대의 문제의식과 과제가 유학사를 보는 안목에 투영되어, 한국유교사가 우리시대에 우리의 정신적 유산과 위상을 인식하는데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